

## 국제 재보험 산업의 변화

박종근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국제 재보험 산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기존의 재보험 업계의 서열 변화를 초래하였다. 재보험사간에 인수·합병이 활발히 일어나 초대형 재보험사가 탄생하여 전통적인 영국의 Lloyd社가 업계 선두 자리를 내주면서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국제 재보험 사업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신규 재보험사의 출현에 따른 경쟁 격화와 이로 인한 보험료의 하락에 연유하고 있다. 재보험 업계의 인수·합병과 신상품의 개발은 향후 치열한 재보험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공격적 경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근 국제 재보험 업계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인수·합병의 열풍

지난달 미국의 American Reinsurance社는 독일 재보험사인 Munich Reinsurance社를 33억 달러에 인수했다. American Reinsurance社에게는 높은 자연 재해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하고, 치열해진 국제 재보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다. American Reinsurance社의 Munich Reinsurance社 인수는 경쟁 회사인 General Reinsurance社가 National Reinsurance社를 9억 4,000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발표한 지 한달 만에 있는 일이다. 한편, 지난 8월 말에는 재보험 업계 2위인 Swiss Reinsurance社가 영국의 생명보험 회사인 Prudential Corporation 계열의 Mercantile & General社를 17억 5,000만 파운드에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재보험 업계는 인수·합병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는 재보험사들이 지진이나 태풍에서 오는 초대형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력과 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 신상품 개발과 시장 다변화

지난 수년 동안 국제 재보험 시장은 각국 시장의 개방과 새로운 시장 참가자의 급증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보험료의 하락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자연 재해가 대폭 감소한 지역에서는 재보험료가 수년 전에 비해 20%나 하락한 곳도 있다.

과거 최고의 재보험사로 군림하던 영국의 Lloyd社は 이러한 재보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세계 1위의 자리를 다른 기업에 내주고 말았다. Lloyd社は 세계적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는 버뮤다 시장에서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집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Lloyd社도 최근에는 재보험 시장의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공격 경영 전략을 택함으로써, 새로운 재보험 상품 개발과 거대한 잠재 시장인 아시아로의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재보험 업계의 인수·합병은 재보험사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저렴하고 정교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보험 상품은 금리나 환율, 주식 시장의 위험 등을 고려한 상품이 될 것이다. 최근 일부 대형 재보험사들은 기존의 보험 상품이 안고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의 고안과 자산 운용 및 컨설팅 부문에 전문화를 서두르고 있다.

### 보험의 증권화

기존의 재보험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보험의 증권화이다. 보험의 증권화는 보험사들이 초대형 위험을 커버할 능력이 없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즉, 캘리포니아주에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주는 지진이 일어날 위험을 보험대신 자본 시장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최대의 산재보험 회사인 USAA社は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헤리케인으로 인한 재해의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상품을 시험적으로 발매하였다. 同상품은 일정 기간 내에 헤리케인으로 USAA社가 10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 요청을 받을 경우, 채권 보유자로 하여금 이자 수령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붙은 채권이다.

물론, 이러한 상품은 아직 적절한 가격의 형성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의 개발은 기존 재보험 상품의 보완적 상품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기존의 재보험 상품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최근 국제 재보험 산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고 있다. 재보험사들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 붐이 일고 있고,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 더욱이 규모의 경제화와 신상품의 출현은 보험료의 하락을 가져와 기존의 재보험 업무를 지속하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제 재보험사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보험 상품보다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

(Source : *Financial Times*, September 9, 1996)